

翰林大學의 建學理念과 發展에의 意志



金 銚 一
(翰林大 學長)

머리말

翰林大學은 1982년 3월에 개교한 지방의 작은私立大學이다. 역사가 짧기 때문에 과거보다 미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대학의 소개도 현재의發展相보다는 미래를 향한發展에의 意志와 構想을 많이 하게 된다.

지금 대학가에서는 翰林大學을 대단히 빠르게 발전해 가는 대학, 또한 훌륭하게 발전할 가능성 을 가진 대학으로 평가하고 교육에 관심 있는 인사들이 많은 흥미를 가지고 우리의 발전상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여러 가지 要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와 같이 좋은 인상을 주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翰林의 전통이 생성과정에 있는 현 시점에서 내실 없는 자부심이나 허세스러운 긍지는 금물이겠지만 아직은 작으나마 우리 대학이 유명해져 가고 있는 요인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고 싶다.

첫째로 翰林大學을 설립한 一松學園이라는 재단과 그 이사장인 尹德善 박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강한 의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며, 둘째로는 교육계와 학계에서 名聲 있는 교수들이 創業期의 작은 지방대학에 속속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학의 建學理念이 특출하고 그 발전 의지가

확고하며 그것들이 틀없림이 구현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가에서는 翰林의 존재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設立者, 財團, 그리고 立地的 特性

설립자 尹德善 이사장은 교육자이며 대학 경영자이다. 카톨릭 醫科大學과 中央大學校 醫科大學創設의 주역을 담당했던尹이사장은 外科醫師로서의 환자진료를 쉬지 않으면서도 의학 교육자로서의 귀중한 經驗을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훌륭한 醫師가 되려면 먼저 훌륭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信念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信念은 대학교육에 대한 조부와 구상을 낳게 하였고 오늘날 翰林大學의 진학 이념과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 것이다. 또한 대학병원을 신설하고 확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마된 기업가적 수완은 그로 하여금 3개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醫療財團의理事長이 되게 하였고 勤儉節約을 병원 운영의 기본 방침의 하나로 하여 얻어진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급기야는 學校法人 一松學園을 설립하고 그理事長이 되게 한 것이다. 즉 의료재단 산하의 종합병원이 모체가 됨으로써 자금 회전이 원활한 대학 재단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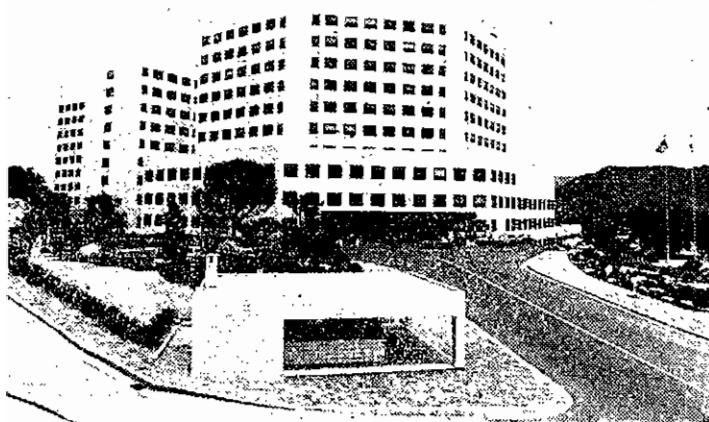
이와 같이 교육자로서뿐만 아니라 기업가로

서도 막월한 資質과 풍부한 經綸을 가진 理事長과 돈돈한 재단의 人的, 財政的 뒷받침이 모여서 翰林大學의 創業은 비교적 빠른 進步와 特性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翰林의 매력이 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大學의 위치와 환경이다. 금수강산의 대표적 大自然을 배경으로 하는 湖畔의 도시 春川에 자리한 翰林大學 캠퍼스 환경은 大學人이라면 누구나 동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昭陽江이 굽이치는 곳에 춘천 盆地의 鎮山인 凤儀山이 있고 그 중턱에 자리잡은 대학 캠퍼스는 浩然의 氣를 기르기에 알맞다. 그리고 동쪽의 大龍山, 加里山 북쪽의 五峰山, 英落山 서쪽의 三岳山, 北培山 남쪽의 劍峯, 守理峯이 凤儀山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강강수월리를 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연꽃의 花순을 연분홍 花잎이 떠받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지방의 아담한 私立名門으로 육성하자는 대학의 未來像이 그러하듯이 창업의 힘찬 활기 속에서도 포근한 대학내의 분위기는 이와 같은 자연환경과 잘 조화가 되어서 대도시의 매머드 대학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연구환경과 학습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 나들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조건 등이 바로 翰林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된다.

▼ 의료재단 산하의 종합병원이 모체가 되어 대학재단이 성립되었다
(春川 聖心病院)



建學理念과 教育目標

교육은 확연하고 명백한 이념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 의식적으로 힘을 쏟을 때 비로소 그 만들고자 하는 이상적인 人間像을 이룩할 수 있으며 얻고자 하는 지식을 創出하고 傳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翰林大學은 그 출발에 있어서부터 먼 未來를 내다보면서도 現代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大學教育 일반이 처해 있는 現實을 직시하면서 나름대로의 建學理念을 뚜렷이 수립하여 밝히고 그 實現을 위하여 의도적이며 의욕적인 특색 있는 교육을 하여야 할 當爲性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학을 創立하는 의미를 실현하는 길이요, 大學教育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설립자의 大學教育에 대한 理想과 抱負, 意欲, 그리고 情熱을 충분히 반영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翰林大學의 전학이념이 設定되었다. 즉 “本大學은 豐富한 人間性과 創造的 知性을 지닌 人材를 양성하고 學術 및 文化的 진흥을 도모함을 理念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폭넓은 文化的 視野, 고도의 倫理的 判断力, 活力 넘치는 육체적 건강을 배양하도록 힘쓴다. 둘째, 여러 분야의 학문에 관하여 國內外의 教育·연구

기관과의 밀접한 유대하에 流動하는 現실社會에 대응하면서 研究·教育하도록 힘쓴다. 세째, 자신의 成長, 사회의 發展, 국가의 번영,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고 봉사할 줄 아는 人間을 양성하기에 힘쓴다.”

이상과 같은 翰林大學의 전학이념은 다음과 같은 教育目標로 구체화되어 있다.

1. 人間主義的 인간관에 입각하여 개인이 타고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스스로 啓發하여 자아 완성을 꾀하게 하며
2. 개인의 존엄성과 이에 따른 自由, 正義, 사랑에 대한 신념과 실천력을 길러 주고 분별 있는

倫理的 観念력을 舒暢하게 하며

3. 세계 속의 韓國人이라는 전제 하에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世界人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나라와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줄 알게 하며
4. 教養과 專攻에 관한 東西古今의 지식을 겸허한 자세로 터득하고 비판적으로 파악하여 창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能力を 길러 주며
5. 諸般 事物에 관하여 분명하며 깊이 있고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운치 있게 표현할 줄 아는 能力を 길러 주며
6. 개방적이며 다양성과 유연성을 지닌 文化的 시야를 갖추어 계속적으로 배움을 그치지 않는 자세를 길러 준다.

우리 翰林大學의 전학이념과 그것을 어느 정도 구체화한 교육목표에는 人間의 형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특히 설립자가 강조한 네 가지 점, 즉 첫째, 체력을 튼튼히 하는 건강한 인간, 둘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류애적 시야를 가진 인간, 세째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스스로 人生을 개척하는 能動的 인간, 네째 기계물질 문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을 찾고 지키는 能動力이 반영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학이념을 세부에 걸쳐 분석한다면 翰林大學의 교육 특색을 여러 가지 면모로 추출할 수 있지만, 제 아무리 전학이념이 훌륭하여 남이 가지지 못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翰林大學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이 제단이건, 학교이건, 교수이건, 학생이건 혹은 직원이건간에 전원이 그 理念의 구현을 위하여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느냐가 중요한 문제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翰林大學 자체에서 지난 3년간에 가졌던 6회의 교수 세미나 중 3회에서 “建學理念과 教育目標를 위한 提言”, “大學의 理念과 機能”, “翰林大學의 建學理念” 등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었음은 전학이념 구현을 위한 우리 大學의 의지에 친밀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전학이념과 교육목표를 각 교과과정에 어떻게 반영하고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翰林教育研究所”란 특별 연구소를 발족시켰다. 이 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교육 및 학습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평가 및 지원 활동을 통하여 본

대학 교육체계의 계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학교육 및 교육 전반에 대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의 첫 째가 “大學의 教育理念과 教育目標 및 그 구현 과정에 관한 研究”로 되어 있다.

現況

開校한 지 3년 만이 지난 우리 大學의 모습은 조출하지만 알차기도 하다. 8명의 교수와 4개 학과 228명의 학생들로 시작하였지만, '85년 6월 30일 현재 14개 학과에 조교 34명을 포함해서 교원수는 241명이고 학생수는 1,383명이다. 학생 대 교수 비율은 5.7대 1이다. 의학과 학생은 2학년까지 있는데 4개 부속병원에 136명의 臨床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학과가 완성되기 전에 전공분야별 교수 인력을 미리 확보하는 傾向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의학과의 임상교수를 계외하더라도 재직학생 대 재직교수 비율은 19.5로서 전국 평균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교수층의 구성도 임상 교수를 제외하고 교수, 부교수 대 조교수, 전임강사의 비율은 3.5 대 36이므로 이는 지극히 健全한 것으로 알고 있다(〈표 1〉참조).

〈표 1〉 교원 현황

1985.6.30 현재

학위별	직위별	박사	석사	학사	계
교수	46(26)	1	7(2)	54(28)	
부교수	21(15)	7(5)	5(1)	33(24)	
조교수	15(8)	30(18)	1	46(26)	
전임강사	4(4)	48(32)	22(22)	74(58)	
조교		22	12	34	
계	86(53)	108(55)	47(28)	241(136)	

() 안은 임상교수

시선 면을 살펴본다면 聖心女子大學으로부터 引受한 整地 4만평과 건물 3,700평에서 시작하여 제일 먼저 학생 기숙사 3동(2,175평)을 지어 재학생의 약 40%를 입사시킬 수 있게 되었고, 400병상 규모의 대학부속 춘천 성심 병원(7,986평)을 신축하여 1984년 말에 개원하였으며 대학본관, 의학관, 도서관, 학생회관(합계 7,834평)이 건설중에 있어 연말 준공을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 400미터 트랙을 포함한 체육시설이 추가된다면 내년 말까지는 凤巖山麓 캠퍼스는 일단 완성되는 것이다.

곧 이어서 保健醫學系를 제외한 大學의主力이 위치할 제2캠퍼스 건설이 차수될 것이며 그 후 보지도 인접 春坡郡에 마련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해 왔고 또한 하고자 하는가?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英語敎育이다. 외국에서 초빙되는 畢學의 강의와 지도를 받으려면 외국어에 의한 학습 능력을 가져야 하겠고 졸업 후 세계 속의 翰林人으로 웅비하려면 외국인과 교류하고 경쟁 할 수 있는 어학 실력을 길러야 하는데 그 외국어로서 英語를 배하였다. 어학실습실 시설을 구비하고 외국인 영어 교원을 임용하고 학점 없는 영어회화강좌를 무료로 개설하고 급기야는 영어 실력고사제를 도입해서 일정 수준의 영어 실력을 평가받아야 졸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영어 실력 평가방법으로 TOEFL을 활용할 수 있다면 翰林大學 졸업생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세상이 바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계속중에 있다. 물론 전 학생의 필수과목인 교양영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번 하계방학중에는 1학기 교양영어에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보충과정을 설치했는데 학생들로부터 꽤 좋은 호응을 받았다.

학생들의 연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위한 교비 해외연수과정을 2회째 운영하고 있다. 2,3학년 학생 중에서 평점 평균이 B 이상이고 영어 실력고사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식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大學에서 부담하여 2주간의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그 화급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전 학생에 대한 컴퓨터교육이다. 본교생은 누구나 1,2학년 중에 3학점 한 학기의 전산개론을 교양 필수과목으로



▲ 대학캠퍼스의 위치와 환경은 翰林의 또 하나의 매력이다

이수하게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大學의 전자계산연구소는 학생들에게 개방하는 '컴퓨터 랩'을 운영하고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컴퓨터를 두려워 하지 않는 翰林人을 기르기 위해서이다.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계획중에 있는 것 중 두 가지만 소개한다면 '라이팅 센터 운영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스포츠 一人一技 부여 계획'이다. 의사 표시를 명쾌하게 할 수 있는 翰林人, 어느 때나 스포츠 활동에 뛰어들 수 있는 건강하고 발랄한 翰林人을 기르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앞서서 상당한 加外人力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漢文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문강좌를 개설하였고 京春 鐵道변 磨石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 위치한 '泰東古典研究所'를 운영하면서 한문 학자 양성에 전념하고 계시는 任昌淳선생이 바로 우리 한문 선생님이시다.

교수들에 대한 연구 활동과 도서 구비에 관해서는 理事長이 직접 그 지원을 담당하고 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들은 이 겹에 있어서 翰林大學에서의 교육·연구활동에 상당한 만족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자면 '84년 1월에 발족한 '아시아文化研究所'는 연간 예산이 1억원 규모로서 '84년도 학생 납

입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84년도 도서 구입비는 약 1억 1천만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이는 납입금의 13%에 해당되는 것이다. '85년도 도서 구입 예산이 2억 7백만원이고 이는 총 예산의 거의 13%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박물관 사업으로 7천 3백여 만원을 투입하여 126점의 遺物을 구입했고 春城郡 西面에서 支石墓 발굴 활동에 1천만원이 투입되었다. 이와 같은 금액과 활동은 완성된 先發大學의 예산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겠지만 80% 이상의 연간 예산을 재단 轉入金에 의존하는 작은 신설 私立大學으로서는 大學 발전에 대한 설립자와 재단의 확고한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태세 없이는 기대하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우리는 개교 당시 이미 상당한 수준의 教育媒體生產 시설을 하였고 '시청각교육연구소'를 설립해서 교수들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지원할 태세를 갖추었다. 자연과학분야에서는 점차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작년 교수 세미나에서 "大學에서의 教育工學의 活用 方案"이란 과제를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토의한 일도 있다. 금년에는 '시청각교육연구소'를 '翰林教育研究所'의 '敎育媒體研究室'로 개편하고主任技士는 2개월간의 해외 연수를 캐나다 엘버타 대학에서 마치고 돌아왔다. 현재, 교육매체 연구실은 각종 슬라이드와 OHP 자료의 제작을 위한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완벽한 방음장치와 VTR 제작 시설을 갖춘 스튜디오에서 TV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한 가지 첨가하자면 우리 大學에는 옥외 풀프 연습장이 있어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서클활동을 통해서 이를 활용하고 있어 신체 단련 외에 정서적 측면에서도 유익한 스포츠 시설로 등장하고 있다.

發展計劃과 未來像

大學 발전의 기본 구상은 거의 정립 단계에 와 있다. 즉 '90년대 초반까지 30개 내외의 학과에 5~6천명의 학생을 가진 아담한 종합대학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大學으로서 기본이 되는 학과를 구비하고 국가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응용과학의 학과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학과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학과 정원은 의학, 법학, 경영학 등의 몇 개 학과만 80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30~40명으로 한다. 학과별 교수의 기본 정원은 학생 대 교수 비율 25 대 1을 원칙으로 하고,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을 추가로 담당하는 학과는 기본 정원의 20~50%를 추가로 책정한다.

학과별 교육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작업이 대학발전 계획의 중요 부문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으며 學部과정에서의 특성화는 매우 어려운 일인 줄 알면서도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서 밝힌 견학이념을 어떻게 각 교과과정에 반영시키느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 우리 大學 發展 上의 命題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 大學의 社會事業學科는 Medical Social Work에 상당한 비중을 둔다든지 우리 大學의 體育學科는 社會體育에 비중을 두고자 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공식적인 機構를 통해서 대학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대학 발전 계획에는 물론 大學院 발전 계획과 研究所 발전 계획도 포함되고 있다. 여기에 관련한 기본 구상은 전문분야간의 협동 연구가 용이한 연구소를 육성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여 學部과정 발전 계획과는 반드시 연계를 시킬 필요 없이 대학원 과정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쪽으로 굳혀 가고 있다.

私立大學에 있어서의 대학 발전 계획은 역시 설립자의 의지와 재정적 전망이 편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元老 교수와 주요 部署長으로 구성된 '대학발전위원회'는 理事長 직속의 자문기관으로서 大學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大學의 기획위원회나 기획실 기능에 맡길 수 있을 때까지 창업기의 신축성 있는 계획 기능을 理事長 중심으로 발휘해 나가고 있다.

翰林大學 발전 계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우리 재단의 病院發展計劃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 재단의 모체인 의료재단은 尹德善 理事長이 양 재단을 모두 관장하고 있으며 학교 재단 산하에 4개의 종합병원이 있고 내년 말에는 의료재단 산하에 또 하나의 종합병

원이 개원하게 되며 1,400개의 병상의 病院群은 2,200개의 병상 규모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病院產業體로 발전하는 것이며 우리 大學 발전의 첨출이 됨과 동시에 교육·연구의 공동체로서도 大學과 病院이 상부상조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 翰林大學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문교 행정이 私立大學에 보다 많은自律과

裁量을 인정해 줄 때 우리 大學은 보다 빠른 속도로 보다 훌륭하고 보다 특성 있는 大學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山川이 아름다운 江原道의 首都가 교육과 과학기술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는 未來像이 그려지고 있는 이때에 지방의 私立 名門大學으로 발전해 나가는 翰林의 未來像是 보다 뛰어하게 그려지고 있다. *

〈投 稿 案 內〉

“大學教育”誌 第19號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公募합니다.

1. 内 容—大學教育에 관한 論說, 각종 學術情報, 現場提言, 體驗談 및 新刊紹介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글

- | | |
|-------------|------------|
| ① 論 壇 | ② 學科別 教育課題 |
| ③ 나의 學問과 人生 | ④ 現場提言 |
| ⑤ 教育資料 | ⑥ 新刊紹介 |

2. 枚 數—200字 原稿紙 35枚, 45枚 또는 54枚(⑥은 13枚 또는 22枚)

3. 期 限—1985年 11月 20日

4. 稿 料—一枚當 2,500원(채택된 原稿에 한함)

5. 提出處—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韓國大學教育協議會(T. 783-3891, 3067)

6. 附 記

- ① 國漢文을 混用하되 漢字를 制限하고 필요할 때에는 原語를 併記해 주십시오.
- ② 論壇原稿에는 반드시 200字 이내의 要約文이나 拔萃文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③ 제출된 원고는 編輯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게재합니다.